

전남동부지역본부장 직제 상향 '2급 체제'... 실질적 2청사 기대

전남도, 행정안전부 승인받아 7월 정기인사 반영

동부지역본부 동부권 대표 행정기관으로 개칭 속도

행정안전부가 전남동부지역본부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 직제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승인했다.

전남도는 본부장 직제 상향 승인으로 전남동부지역본부가 본청 2청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직제 상향에 따라 오는 7월 정기 인사와 맞물려 순천 신대지구에 개칭 예정인 동부지역

본부는 2급 본부장이 소속 실국을 총괄한다.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도지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동부권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05년 출장소로 출발했다. 이후 2014년 환경부서를 시작으로 2018년 산림부서가 차례로 이전한데 이어 4개 실국 체

제로 확대 개편을 위해 5월10일까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도의회와 막바지의 견을 조율 중이다.

전남도는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지원비 등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6월 도의회 회기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 통과 등 7월 개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급 본부장이 승인돼 동부지역본부가 동부권의 대표 행정기관이자 실질적 제2청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종합훈련 시행

진주~광양간 복선 전철화 개통 대비 위기대응능력 향상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전선 진상-하동간 철도터널(진월 터널)에서 테러에 의한 일반열차 탈선 및 화재 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테러에 의한 일반열차가 탈선 및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하여 2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및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 인명구조 및 질서유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부산경남본부·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광양시청·광양보건소·광양소방서·광양경찰서·군부대(95여단 4대대)·철도특별사법경찰대 6개 유관기관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실제 열차가 운행하는 현장에서 관계기관 조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대처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훈련이 되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3개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근거 신설
장성·함평·영광 해당...100만 서명운동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누리소통망(SNS)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울산 상생발전 파트너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든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했다.

김 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전남도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된 것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전남은 장성·무안·함평군이 해당되지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릴레이 서명운동 다음 참여자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장성·무안·함평 등 전국 23개 기초지자체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이슬비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1.1 M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3. 06
3. 사업운영기간 : 2023. 06 ~ 2048. 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5. 18. ~ 2023. 06. 01.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일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해서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j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전사 태양광발전소	이정신	99.45	(1,246㎡/11,570㎡)
2 이마기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45	(1,057㎡/11,570㎡)
3 완이2호 태양광발전소	박해만	99.45	(1,101㎡/11,570㎡)
4 봉황 태양광발전소	김부영	99.45	(972㎡/11,570㎡)
5 다해1호 태양광발전소	송수라	99.45	(905㎡/11,570㎡)
6 선 태양광발전소	문형준	99.45	(948㎡/11,570㎡)
7 민회 태양광발전소	김민희	99.45	(1,211㎡/11,570㎡)
8 정영3호 태양광발전소	안경연	99.45	(956㎡/11,570㎡)
9 회망 태양광발전소	정미송	99.45	(980㎡/11,570㎡)
10 봉황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최주경	99.45	(1,017㎡/11,570㎡)
11 해누리1호 태양광발전소	송경옥	99.45	(1,177㎡/11,570㎡)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 891,892,1-4,1-28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45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병남 (661230-1559317)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59번길 34-7(산정동)

위 망 김병남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5월 23일

공 고 인 : 김가영.
주 소 : 광주 남구 수박동로5번길 9, 203호(월산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5월 17일
공 고 기 간 : 2023. 5. 23 ~ 2023. 7. 23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10,000원	5.3배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정번호 1971-1000

'마늘 가격 불안정' 전남도, 정부에 선제적 종합대책 건의

전남도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인 6월 이전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2023년산 마늘 수매 비축량을 전년보다 2만 확대하고 수매계획 조기 발표, 수입산 관리 강화, 시장격리 등 실효적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마늘 가격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전국 마늘 재

배면적이 지난해보다 943ha 늘어난 2만 4629ha로 조사한 가운데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만 6000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산 난지형 마늘(남도종 등)의 경우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만4000t으로 5월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한 이유다.

전남도는 또 도 차원에서 마늘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과 함께 하나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가공업체 등 대량 소비처와 구매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